



사이비 언행 언론의 고발전

#8 홍보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

K A A + bigfrog 그림자







저도 상대해야 할 인터넷신문들이 너무 많다보니 제대로 업무를 못 볼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막무가내로 만나자고 하면 김영란법에 따라 차 한잔 하면 되니까 좋아요. 찾아와서 업계 돌아가는 얘기만 하면 좋은데, 여전히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니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법이 시행된 만큼 무엇이든 원칙과 룰을 지키면서 좋은 관행을 만들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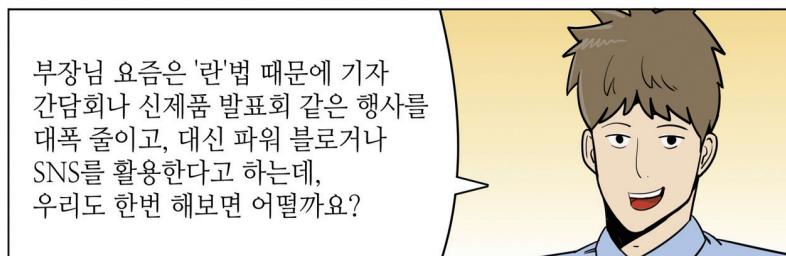
작년까지만 해도 신제품 설명회에서는



호텔 연회장만 대여하고, 식사는 그냥 햄버거나 샌드위치 돌리면 안될까요? 선물은 5만원 미만이니까... 그렇다고 손수건이나 양말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네요.



이번 신제품 발표회는 아주 중요한 행사야. 기자설명회의 격이 떨어져서도 안되고, 사은품도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불필요한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최근 기업들 취재 지원이 없으니까 전문잡지 기자나 영세매체 기자들 중에서는 프리랜서로 독립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블로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권원 :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

기업과 언론사간 협찬에서 권원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협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으며, 협찬금액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되고는 협찬 요청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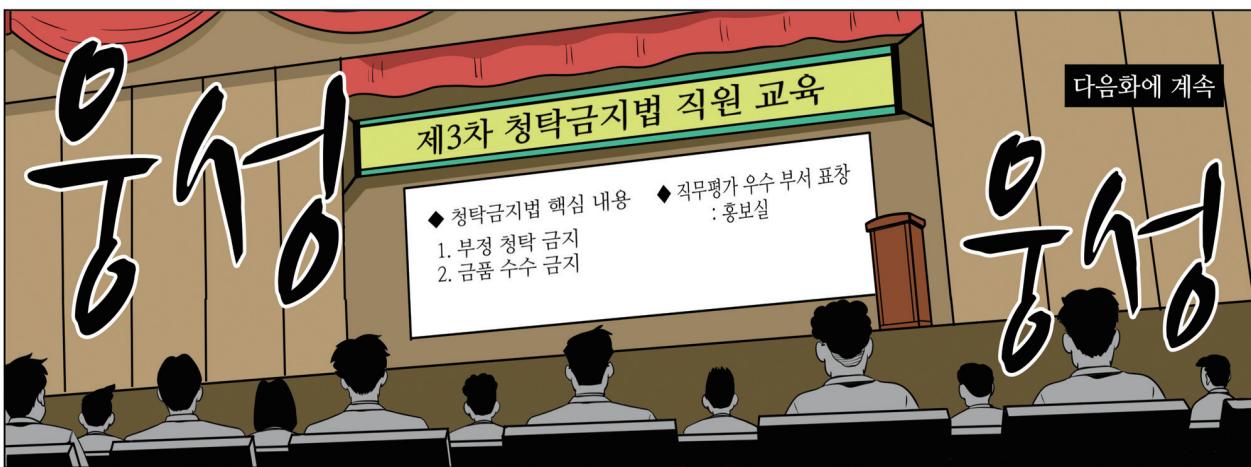
오프라인 광고가 갈수록 감소하다 보니 신문사마다 매출 목표를 협찬으로 만회하려는 것 같아. *애드버토리얼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 말야.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언론도 기존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야.

S신문이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윤리 규범을 만든다는군. 이런 노력이 확산돼서 합리적인 광고시장이 조성되고 건강한 저널리즘이 뿌리내려야지.



참! 그리고 보니 오늘 5시부터 대강당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3차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 해야지! 자, 가자고!



다음화에 계속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 광고(advertising)와 기사(editorial)의 합성어로 기사 형태로 만들어진 광고를 말한다.